

# 11월 월간보고

라운아띠 12th 발로본두  
신유식, 임병준, 송누리, 정은혜



일정 - 활동내용 - 생활 - 중간평가 - 고민 - 개인소감

일	날	화	수	목	금	토
30						1 홈스테이시작 Sport club
2 Soccer game meeting Music club	3 다하파라NFPE 서베이	4 off day 보고서 작성 YMCA 축구경기	5 Alex meeting Sela: club	6 ICS 합동 프로 젝트	7 Off day Youth meeting	8 Report Sports club
9 보고서 작성 Music club Korean class	10 다하파라NFPE	11 특송준비 중간평가 준비	12 특송준비 중간평가 준비	13 중 - 환영식	14 간 평 - 다하파라방문 - 활동평가 - 개인면담	15 가 - 홈스테이방문
16	17 다하파라NFPE 서베이 Meeting	18 다하파라NFPE 서베이	19 gbc sela: club 시장위원회미팅	20 다하파라NFPE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21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22 End poverty Campaign Sports club
23 Boy school 미팅 현지총장님덕방문	24 클리닝캠페인준비 기념식	25 다하파라NFPE 서베이	26 클리닝캠페인준비 Sela: club	27 다하파라NFPE	28 ICS volunteerism semina 참가	29

! 활동

다하파라  
NFPE

과목	수업 진행 상황
영어	Class 1 - 알파벳을 가르친 후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수업 Class 2 -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맞는 단어를 가르친다. 찬트와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영어 애니	수업의 테마를 정해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고, 관련 단어를 익혔다. 같은 수업을 두 번 반복하여 복습의 효과도 보았다.
수학	Class 1 - 영어 숫자 읽고 쓰기 Class 2 - 영어 숫자 1~100까지 익히기
체육	공으로 할 수 있는 놀이로 수업을 진행한다
예능	깃발 만들기, 데칼코마니, 스크래치 활동을 통해 창의력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진행.



영어애니메이션



체육



미술



영어

다하파라  
NFPE

방글라데시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국경 지역인 다하파라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유독 추운 지역이다. 그리고 다하파라 아이들은 주로 맨발로 다닌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은 늘 상처투성이다. 겨울철 대비와 건강을 생각하여 아이들을 위한 양말과 운동화를 선물하였다.



## 서베이

이번 달부터 틸라파라지역의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틸라파라는 다하파라 인근 마을로 비리시리 YMCA의 프로젝트 지역 중 한 곳이다.

우리는 교육과 보건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이 지역에는 말라리아가 이슈였는데 지금은 말라리아 발병률을 많이 낮춘 상태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건 이슈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다.



## Youth Club

### \* Music Club

서로의 노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클럽을 진행하였다. 가로 노래를 배웠는데, 얼마 뒤 진행된 중간평가 때 Youth들과 다 함께 부를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서로의 캐롤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다.

### \* Sports Club

12월에 있을 배드민턴 대회를 대비하여 배드민턴을 위주로 클럽을 진행하였다. 특히, 여자부 대회도 열 예정이기 때문에 여자 Youth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하였다.

### \* Cleaning Club

이전 기수들이 계속해서 클리닝 활동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 심지어 Youth들도 쓰레기통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적었다. 클리닝 클럽의 목적을 '인식개선'에 두고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시장위원회를 찾아가 쓰레기통 사용의 실태를 확인하였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 Youth Club

### \* Selai Club

많은 여자 Youth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Youth들에게 방글라데시의 자수를 배웠다.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해 온 솜과 양말을 이용해 인형을 만들었다. 이 클럽에서 만들어진 인형과 손수건으로 수익사업을 하여 홍수피해지역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 \* Korean Class

평소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인사말과 자주 쓰는 생활 용어를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로 오는 Youth들이 한국어에 익숙한 Youth들이라 생각보다 많은 한국어를 알고 있고, 한글로 표현을 쓰는 것까지 수업이 진행 되고 있다.



Sports Club



Selai Club



Music Club



Selai Club

## 빈곤퇴치 캠페인

10월에 진행 된 빈곤퇴치캠페인 활동이 유익하다는 피드백으로 다시 한 번 진행 하게 되었다. 지난 캠페인의 피드백을 반영해 각 부스를 정비 한 후, 'Ideal school'에서 같은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새로운 Youth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 정보 부스에 게시된 내용은 전교생이 보고 싶다는 요청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의 영향을 전달할 수 있었다.



## ICS합동

### -둑 쌓기

지난 달부터 영국에서 들어온 봉사단체인 ICS와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서로의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서로 도와가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ICS의 활동에 초대를 받아 같이 진행한 활동들이 있다. 지난 9월 홍수로 무너진 둑을 다시 쌓는 활동을 진행 하였다. 라온아띠와 YMCA ICS단원들, GBC에 파견된 ICS단원들, YMCA Youth 멤버들까지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무너진 둑을 복구하였다. 9월의 홍수 피해를 본 우리에게겐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 ICS합동 - 워크숍

YMCA에서 진행된 'volunteerism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청년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면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할 거라는 의견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 'Volunteer', '성인', '리더쉽', '소통'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여러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우리는 Youth들이 워크숍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몇몇의 Youth들만 의견을 내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워크숍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Youth들에게는 많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이 현지어로 진행이 되어 Youth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다.



## 2. 생활

- 홈스테이
- YMCA축구경기
- 특송준비
- 현지총장님 득남 기념식
- Youth Union 기념식

## 홈스테이

방글라데시 팀의 곱이라고 불리는 홈스테이 \*

11월 1일 드디어 홈스테이 생활을 시작하였다. 앞으로 비리시리에서 활동이 종료될때 까지 홈스테이 생활을 할 예정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더 마을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엔 마을 축제도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생활도 기대된다.



## YMCA 축구경기

휴일을 맞아 비리시리 YMCA 주관으로 축구경기가 열렸다. YMCA의 모든 staff와 회원들, 라온아띠 그리고 ICS 멤버들이 참여하였다. 비리시리 YMCA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





## 특송준비

매년 이 지역에서는 비리시리 YMCA와 YWCA의 공동주관으로 기도회를 가진다. 우리는 이 기도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YWCA를 방문해 이틀 동안 함께 찬송가를 연습하였다. 비록 중간평가와 기도회의 일정이 겹쳐 기도회에서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지만, YWCA Youth들과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 Youth Union 기념식

‘가로 학생 조합’ 설립 35주년 행사가 있었다. 비록 가로 학생들의 행사였지만 우리도 초대를 받아 참여하였다. 비리시리 지역의 많은 가로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하였다. 또한, 조합 초기 멤버가 방문하여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가로 학생들이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빽랍총장님  
득남기념식

비리시리 YMCA 빽랍 사무총장님께서 득남을 하셨다. 가로 민족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기념식을 갖는다고 한다. 우리도 기념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였다. 비리시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득남을 축하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중간평가

## 중간평가 진행

11월 13일~15일, 라온아띠 활동 중간평가를 위해 한국에서 중간평가 팀(이은솔 간사님, 김일식 총장님, 허빈 간사님, 정우영 부이사장님)이 방문하였다. 두 달 만에 보는 얼굴인데, 비리시리에서 총장님과 간사님을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

### \* 13일

비리시리 YMCA 사무총장님께서 비리시리 YMCA의 설립목적과 활동내용을 중간 평가팀에게 전달하였다. 이 후, 중간평가팀을 위한 환영식이 진행 되었다. 여러 Youth들이 방글라와 가로의 전통 춤을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 방글라, 가로 노래를 준비하여 무대를 장식하였다.

중간평가  
진행

\* 14일

우리의 프로젝트 지역인 다하파라를 방문하셨다. 우리의 수업도 보시고, 서베이 지역을 방문하셨다. 허빈 간사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자전거로 이동을 하셨다 \*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중간평가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저녁에는 개인면담 시간을 가졌다.

\* 15일

마지막으로 호스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처음 들어가게 된 병준 단원과 누리 단원의 호스트를 방문하여, 호스트 가족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중간평가 이후

이번 중간평가가 6Y에만 갇혀 있지 말고, 지역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점검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우리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방향성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우리가 수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활동이 정형화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틀에 갇혀 활동하고 있었다. 좀 더,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4. 우리들의 고민

- Club 활동 방향



## Club 활동 방향

Youth들의 요청으로 인해 우리는 5개의 클럽을 개설하였다. 하지만, 시험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많은 Youth들의 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 5개의 클럽을 다 유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또한, 우리의 목적이 YMCA로 Youth들을 모으고, 그들과 관계형성이 목적이었는데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Youth들과 관계형성이 가능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클럽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음악클럽에서는 캐롤과 연극을 준비하여 크리스마스 전에 병원을 찾아가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스포츠 클럽에서는 배드민턴 경기를 열어서 다양한 Youth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을 생각이다. 셀라이 클럽은 인형과 손수건을 만들어서 수익활동을 해 홍수피해지역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클리닝 클럽은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시장상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인식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5. 개인 소감

신유식  
(Shapon)

11월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현지 생활에 익숙해진 타인지 활동하는데 있어  
치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팀원들에게도 미안함이 남는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중간평가를 기점으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나의 모든 점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조금 모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남은 기간 조금 더 치열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임병준  
(Ananta)

어떻게 보냈는지, 뭔가 나사빠진 한 달을 산 것 같다.

배우려는 노력도 멈췄고, 해보려는 의지도 없어졌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중간평가를 거쳤고,

그 후에도 나약하고, 늘 반복된 기계적인 일상을 살았다.

중간중간 나태와 익숙함의 차이를 잊지말라는

간사님의 충고에 정신이 문득문득 들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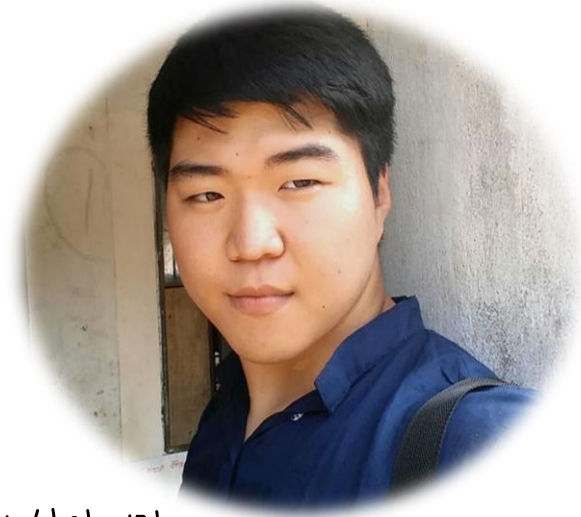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11월이었다.

다하파라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밥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12월이 되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약 한달도 안남았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모든

위대한 여정에는 시련과 고난이 동반된다는 데, 지금에서야 11월의 나태함 그것이 곧 시험이

였고,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다시 벙골어 공부도 시작했다.



**임병준**  
(Ananta)

또 영어신문도 주문해서 읽어보고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방글라데시의 사건들과 변화를 읽어내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는 순다르반이라는 지역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몇 년전, 태안에서 있었던 대 참사가 떠올랐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되는 바이다. 개인적으로 우리 12기가 오고 나서 보구라, 비리시리지역에 14년만에 홍수라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오고, 또 이제는 기름유출 사고까지 일어났다. 왠지 모르게 우리 때문인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잘 쉬었으니, 그 힘을 원동력삼아, 마무리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늘 연락주시는 우리 가족들, 내게 늘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선배기수들, 자기들도 엄청 고생하면서 우리 걱정해주는 12기 동기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송누리  
(Shanta)

이번달은 호스트생활, 중간평가 가장 큰 일정 이었다.

나의 호스트는 처음 호스트를 받는 집이었다.

그렇기에 나도 조심했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족들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내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아닌 <sup>6</sup>나로 살고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처음에 더 힘들고 적응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물론 지금도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곳을 오기 전 까지 나는 호스트 생활에 부

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아니고 활발한 아이도 아니고

친화력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호스트 생활이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 이 곳에서 내가 아닌 나로 생활을 하게 되니 나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많이 지치는 한 달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팀원이 나에게 자연스러움이 최고라는

말을 해주었다.



송누리  
(Shanta)

그래서 나는 최대한 내가 한국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로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중간평가' 나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준 시간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잘 못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어린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중간평가 이후 나는 공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내가 온 목적과 방향성을 잃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정에 맞춰서 나를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나는 초조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국내 훈련부터 나는 나만의 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의 나는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관심가지지 않았던 부분을 쉽게 허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나와는 다른 것에 대한 개방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송누리  
(Shanta)

국내훈련 때부터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3개월을 생활하면서 나의 개방성이 조금이라도 열렸을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는 얼마나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내 자신에게만 충실했는지 알 수 있는 시간 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활동하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활동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가 찾지 못하는 이유는 찾는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더 주어진 것에 나를 맞추며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달은 그리고 지금도 9월, 10월과 다른 감정이 찾아 온 듯하다. 조금은 버겁고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고 하지만 중간평가때 나의 자소서를 다시 한 번 보고 내가 찾은 것은 나는 배움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벽을 허물고 개방성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중시하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남은 2달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잘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은혜  
(borsha)

매번 보고서를 쓸 때마다 '벌써'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시간은 절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구나. 이번 달은 유난히도 힘이 들었던 달이었다. 이곳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동시에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다. 그리고, 매번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기 보다는, 속상함과 서운함을 더 많이 느꼈다. 그러면서 이곳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 했다. 중간평가를 거치면서 나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팀원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진짜 '나'는 누구인지. 꾸며진 내 모습이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 들이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 보다 진짜 '나'를 찾아야 겠단 생각을 많이 했다.



정은혜  
(borsha)

그리고 이번 달은 개인적 고민을 제외하고는 무슨 활동을 한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지나가버렸다. 내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던가. 가장 크게 확인 할 수 있는 달이었다. 이제서야, 내가 어떻게 활동을 전개 해야 할 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두 달도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남은 시간이라도 헛되지 않게 잘 보내야겠다.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속상해 하면서 팀원들을 많이 괴롭혔다. 근데, 그럴 때 마다 항상 내 입장을 먼저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 줬던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른 방향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었다. 부끄러워서 말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정말 정말 고맙다.

또, 전 기수인 정선오빠가 비리시리를 방문하였다. 같은 호스트여서 대화 할 시간이 많았는데 내 고민도 다 들어주고, 호스트 가족들과 친해지는 것을 많이 도와 주었다. 덕분에 마음도 편해졌고, 홈스테이 생활도 많이 편해졌다. 오빠에게도 정말 많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멋다한 사진 이야기 \*

다하파라



# ICS Program



빽줍다다 집 방문 & 바비큐 파티



아침산책



shant







ananta



borsha





YMCA

Mitela ♥